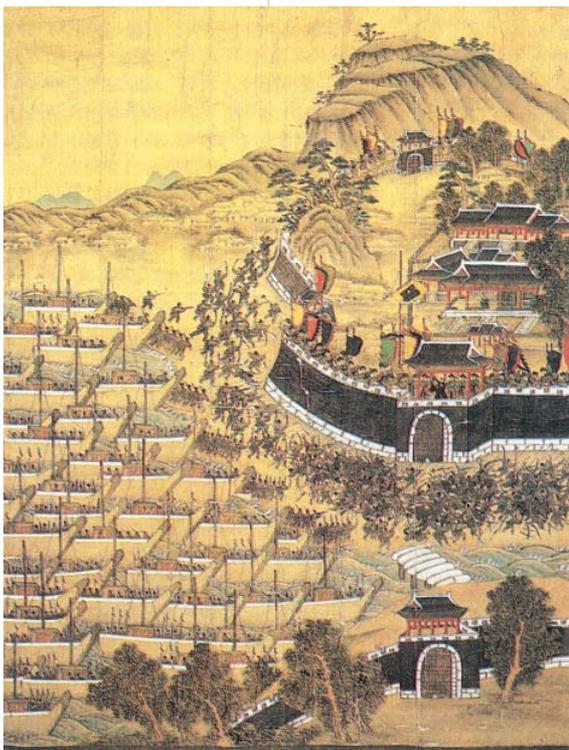


제4절 임진왜란(壬辰倭亂)과 광양(光陽)

1. 시대의 개관

15세기말부터 당파싸움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국방력이 점차 약화되어 왜구의 소란이 자주 일어났다. 1574년(임진왜란 18년전) 이율곡이 경연(經筵)에서 일본침략을 대비하여 ‘10만양병설’을 주장하였으나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590년(선조 23. 임진왜란 1년전) 통신사(通信使)로 황윤길(西人)과 김성일(副使. 東人)을 일본에 보냈으나 그들이 돌아와 황윤길은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당파적 감정으로 김성일은 침략할 우려가 없다고 상반된 보고를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황윤길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일본은 조선침략을 위하여 구주(九州)의 명호옥(名護屋)에 행영본부(行營本部)를 설치하고 군량 병선 군역(軍役) 등 모든 준비를 제대로 진행하고 침략할 날짜까지 정하여 놓고 있었다.

사진2-58 : 부산진 순절도



2. 임진왜란의 발발과 그 개항

1)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동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新秀吉)는 장기간에 걸친 전국(戰國)시대의 내란을 수습하였으나 그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불평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정복욕을 충족시키고자 조선과 명(明)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였다.

2) 임진왜란의 발발

1592년 4월 13일 오후 5시에 육군 15만 8천 7백명, 수군 9천명으로 부산항에 침입하여 7년

간의 왜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진격목표를 서울에 두고 육군을 세 길로 나누어 첫째, 가등청정(加藤清正)은 동로(東路)로 죽령(竹嶺)을 거쳐 서울로 행하고 둘째, 소서행장(小西行長)은 중로(中路)로 조령(鳥嶺)을 거쳐 서울로 행하였고 셋째, 흑전장정(黑田長政)은 서로(西路)로 추풍령(秋風嶺)을 거쳐 서울로 행하였다.

우리나라 방어진은 4월 24일 이일(李鎰)이 상주(尙州)에서 패하고 동년 4월 28일 조경(趙倣)이 충주에서 패하였으며 신립(申砮)마저 탄금대(彈琴臺)에서 패하므로 선조는 동년 4월 30일 서울을 떠나 의주로 파천(播遷)하였다. 그 해 5월 3일에는 서울이 함락되었다. 이어 평양이 함락되고 가등청정은 함흥(咸興)에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왜군이 호남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량미 공급 등 보급기로서 역활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왜(倭)의 수군(水軍)은 남해와 황해를 돌아 육군이 북상하는데 따라 물자를 조달하면서 합세하여 진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쿠키가룡(九鬼嘉隆) 토오토오고(藤堂高虎) 등이 8천의 수군을 이끌고 침략하였으나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의하여 옥포, 사천, 당포, 당항, 한산도에서 계속 패함으로 왜군의 수륙병진(水陸竝進) 작전이 좌절되고 말았다. 한편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승리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 할 수 있었고, 곡창지대인 전라도지방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1593년에는 명군(明軍) 이여송(李如松)의 지원군이 도착하여 소서행장이 점유하고 있던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나 도망가는 왜군을 추격하다가 벽제관(碧蹄館)에서 크



사진2-59 : 임진왜란 전황도 (1592년 4월~12월)



사진2-60 : 행주대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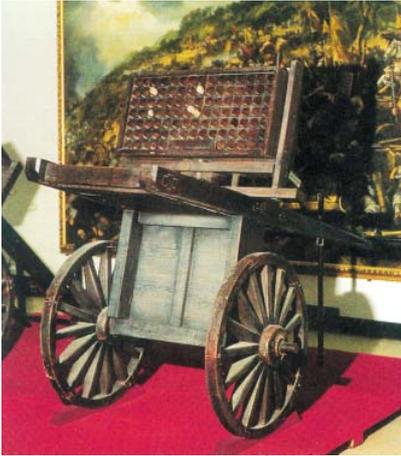


사진2-61 : 회차

게 패하였다. 그러나 1593년 2월 전라도 관군과 의병을 이끈 권율(權慄)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장성 사람 변이중(邊以中)이 자력으로 만든 화차(火車, 40말이 연발되는 탱크) 40량을 지원받아 겹겹으로 포위하고 달려드는 수많은 왜군들을 연발로 쏘아 물리쳐 이김으로써 일본군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동년 10월에 선조는 서울로 환도하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명나라와 일본간에 화의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3년만에 회담이 깨어지자 1597년 1월, 정유재란(丁酉再亂, 1596년 6월까지 거의 물러갔던 왜군이 다시 침략)이 발발하게 되었다.

3. 호남 의병(義兵)과 광양

1) 전라관찰사(觀察使) 이광(李洸)의 우유부단

왜란이 나서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었으나 전라도만이 침략을 받지 않았으므로 의당 관찰사는 관군을 이끌고 나가서 왜군과 싸워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고 있었다. 1592년 4월 20일경 광주목사 정윤우(丁允祐)가 관군(官軍) 동원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임금으로부터 관군을 동원하여 급히 구원병을 보내라는 교지를 받고서야 각 군 읍에 관군 동원령을 내려 여산(礪山)에 집결 시켰다. 그러나 집결명령의 기일을 어겼다는 견책을 모면하고, 동원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연소자나 노약자들까지 모병하여 주야로 쉬지 않고 강행군시켰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 반란의 우려까지 염려되었다. 이러한 군대를 인솔하여 북상하여 공주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이미 서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군대해산을 명령하고 말았다. 이에 조정에서나 호남의 백성들은 실망이 너무나 컸다.

이에 의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의병(義兵)을 일으키고자 하나 3년전(1589년) 전주 출신인 정여립(鄭汝立) 모반 사건에 전라도 출신이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官)의 눈치를 보느라고 쉽사리 행동을 못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교리(校理) 심대(沈垞)를 특과하여 이광의 군대

로 하여금 즉시 재기병을 명령하였다. 이에 이광(李洸)은 제2차 모병령(募兵令)을 내렸다. 이렇게 모집된 군대 중 일부가 옥과(玉果)에서는 반란을 일으켰고, 남원, 순천, 구례의 관군은 삼례역(參禮驛)에서 해산하는 등 어수선한 혼란이 거듭되었다. 그러나 남원 판관 노종령(盧從齡)이 이 혼란을 평정하였다. 그리하여 이광(李洸)은 6만의 군대를 인솔하고 북상하는 한편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尹先覺)이 1만의 군사를 이끌고 온양(溫陽)에서 합류하였으며, 경상도 순찰사 김수(金睟)도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진위평야(振威平野)에서 합류하였다. 이에 3도 관군 8만여 명이 서울 수복을 목적으로 북상하던 중 이광의 선봉군(先鋒軍)이 먼저 용인(龍仁)에 이르렀다. 용인에 주둔한 왜적이 약세임을 보고 공격하였다가 오히려 왜군의 역습과 조총 소리에 놀라 전의를 상실하고 패퇴, 막대한 군량과 병기를 버리고 해산하고 말았다. 이광은 전주로, 윤선각은 공주로, 김수는 경상좌도로 거의 단신으로 물러갔다. 그러나 광주목사 권율과 동북현감 황진은 휘하병을 전원 인솔하여 전라도로 회군하였다.

2) 의병 창의(義兵倡義)

의병은 처음 곽재우(郭再祐)가 경상도 의령(宜寧)에서 일으켜 붉은 옷을 입은 ‘홍의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의령을 지키는 공을 세웠다. 호남에서는 ‘정여립 사건’ 등으로 늦게 기병이 되었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제2차 동원령’에 민중이 응하지 않게 되자 고경명은 이광의 부탁으로 ‘모병격문’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모병한 인원을 이광의 군대에 합류시켜 주었다. 그런데 북상군의 용인 패배와 해산 소식을 들은 우국지사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의병을 창의하였다. 담양에서 고경명(高敬命)이 1593년 6월 1일에 기병하였고 나주에서 김천일(金千鎰)이 동년 6월 3일에 기병하였다. 그리고 장성의 김경수(金景壽), 남원의 변사정(邊士貞), 순창의 양사형(揚士衡) 등 의병장들과 의병들 6,000여 명들이 동년 6월 3일 담양에서 모여서 고경명을 총의병장으로 결의하였다. 그 외에도 조금 늦게 화순에서 최경회(崔慶會), 낙안에서 임계영(任啓英), 광주에서 김덕령(金德齡)과 많은 승군(僧軍) 등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다.

고경명은 6,0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전주로 행하다가 곰치(熊峙)에서 왜적의 대부대와 만나 격전을 벌였으나 수많은 의병을 잃고 패퇴하고 말았



의병은 처음 곽재우(郭再祐)가 경상도 의령(宜寧)에서 일으켜 붉은 옷을 입은 ‘홍의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의령을 지키는 공을 세웠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 부대를 관군에 편입시켜 전투능력을 북돋우고 조직적인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다. 그러나 패한 의병들이 권율의 막하(幕下)로 편입 수습되어 배치(梨峙)의 지리를 이용, 왜적의 전주 침공예기(侵攻銳氣)를 꺾어 후퇴시킬 수 있었다. 이후부터 의병들은 작전방향을 바꾸어 정면공격을 피하고 지리를 이용한 매복과 유격전으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 부대를 관군에 편입시켜 전투능력을 북돋우고 조직적인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병이 대부분 호남 내륙지대에서 일어나고 연해안(沿海岸) 지역에서는 적계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이름있는 서원(書院)이 내륙에 많아 유생들의 충의(忠義)의 신념과 향토애와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었으며, 또한 민중을 규합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한편 연해안 지역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수병징집(水兵徵集)과 수군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자진 참여자가 많았기 때문에 의병활동이 많지 않았다고 보아진다.

3) 광양 의병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광양은 연해안 지역이라 현감(縣監)을 비롯한 관군의 조직은 수군활동에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병(義兵)과 승군(僧軍, 옥룡면 송천사의 성휘(性輝))이 일어났던 의기가 넘치는 고장이다.

▶ 강희보(姜希輔), 강희열(姜希悅) 형제 장군의 봉기

두 형제는 1560년 무렵에 봉강면 신촌마을에서 태어났다. 동생 강희열은 무과에 급제하여 구례 석주관의 조방장(助防長)으로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해 9월 22일 비(飛)가를 장표(章標)로 하여 의병을 일으켜 200여 명을 모았다. 그리고 형 강희보도 별도로 흰옷을 입고 의병을 일으켜(白衣倡義) 200여 명을 모았다. 그리하여 그 때 경상도 산청군 단성에서 적과 싸우고 있던 큰아버지 인상(麟祥)이 적에게 포위되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구하였다. 그 싸움이 끝나자 강희열은 돌아와 아들 승훈(承勳)까지 데리고 구례 석주관(石柱關) 조방장으로 요새진(要塞鎭)을 지키고 있었다. 이 석주진은 고려말 왜구(倭寇)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진(設鎭)하였으나 그 후 임진난이 일어나기까지 폐진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임진난이 일어나자 방어사 광영(郭榮)이 운봉의 '팔랑현' (八良峴, 영남에서 호남에 침입 하는 관문)과 구

례의 '석주진(石柱鎭 하동에서 구례 곡성 남원의 전라도 내륙에 이르는 관문임. 또한 이곳은 지리산과 백운산으로 오가며 유격전 하기에 최적지임)을 축조 하였다. 그 후 이곳은 왜적에게 빼앗기고 뺏기를 여러차례 거듭한 격전지가 되었다. 이순신 장군도 이곳을 와보고 격려하였던 요새(要塞)지이다.



사진2-62 : 석주관(구례)

4. 제2차 진주성 싸움과 광양 의병의 활동

제1차 진주성 싸움은 1592년 10월 왜군 2만명이 몰려왔으나 성안에서는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 판관 성수경(成守慶), 곤양(昆陽)군수 이광악(李光岳. 뒷날 우리 광양에서 왜적을 몰아낸 병사)등 관군 3,800명과 성밖에서 광재우, 최강, 이달, 최경회, 임계영 등 의병 5,000명이 대응외원(內應外援) 하므로써 6일간에 걸친 왜구의 치열한 공격을 물리쳤다. 그러나 1593년 4월 행주산성에서 패퇴하여 서울을 버리고 남하한 왜군은 6월에 영남으로 집결하였다. 그리하여 1차 진주성 패퇴의 설욕을 씻고 호남진격을 하기 위하여 왜장 '가등청정'은 김해, 창원을 거쳐 1593년 6월 15일 함안(咸安)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아군측에서는 의령(宜寧)에서 영호남 관군 의병장들이 모여 진주성 수호(守護)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순찰사 권윤(權慄), 의병장 광재우(郭再祐)는 반대하였는데, 광재우가 말하기를 “적의 10만대군을 우리의 적은 군대로 대적 할 수는 없다. 내 한 몸의 사생(死生)은 처음부터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어찌 백전군졸(百戰軍卒)들을 사지(死地)에다 버리겠는가? 결코 성중에는 들어가지 않고 성밖에서 원병(援兵)이 되겠다”하고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주 의병장 김천일(金千鎰)과 화순 의병장으로 출발하여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가 된 최경회(崔慶會), 충청병사 황진(黃進) 등은 죽음을 맹세하여 고수 하자고 하였다. 김천일이 말하기를 “지금의 호남은 국가의 근본이 되어 있고(식량과 각종 군수품의 보급기지라는 뜻) 진주는 호남과 밀접한 곳으로, 진주를 버린다면 적화(敵禍)가 호남에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힘을 합하여 진주성을 지켜 적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김명원

권율은 남원으로 떠났고 곽재우는 산읍(山邑)으로 떠났으며 전라병사의 거이(宜居怡) 등 제장(諸將)들이 흩어져 버렸다.

결사대가 되어 성(城)안으로 들어간 장수들은 김천일(500명), 최경회(600명), 황진(700명), 고종후(400명), 장윤(300명), 이진(300명), 민여운(200명), 이계련(100명), 목사 서예원 등이었다. 그 소식을 듣고 광양출신 의병장 강희보 강희열과 고득뢰, 오유 등도 각각 군사를 인솔해 왔고, 거제현령 김준민과 김해부사 이종인 등은 이들보다 앞에 왔었으며, 강희보의 종제(從弟)인 강희원, 강희복(강인상의 아들들임)과 강희보의 부장이 된 임우화 등도 뒤를 이어 진주성의 결사대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였다. 그러나 성으로 들어온 관군과 의병을 모두 합쳐도 3,500명 정도였고 본래 성안에 있던 관군을 합하여도 성을 방어할 병력은 1만에서 1만 5천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침공하는 왜적은 가등청정, 모리수지, 소서행장 등 9만 3천의 대병력으로 10배가 넘었고 무기나 화력도 수성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1593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의 공방을 하며 버티었으니 얼마나 처절하였는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 공방전(攻防戰)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차 진주성싸움 내용



사진2-63 : 진주성



사진2-64 : 창렬사(진주)

- 6월 20일 : 왜적이 진주 동북쪽 산위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 중 1백여기(一百餘騎)는 마현봉(馬峴峯)에 나타났다.
- 6월 21일 : 적 백여기가 성 동북 산위에 나타났다. 동시에 왜군이 성을 세겘으로 포위하였고 서북쪽 호(濠. 성을 빙 둘러싼 못)의

물을 뽑고 흙으로 메운 뒤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성중에서는 응전하지 않았다.

- 6월 22일 :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전투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세 번의 파상공격을 막아냈으나 외원군(外援軍)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강희보는 부장 임우화(林遇華)를 구원을 요청하는 특사로 성밖으로 보냈으나 적에게 생포되었다(임우화는 후에 탈출에 성공하였다).
- 6월 23일 : 적이 아침부터 조총을 집중적으로 쏘아대고 서북쪽 못에 물을 완전히 뽑아버린 후 흙을 북돋아 길을 만들고 성벽 밑으로 굴을 파 초석(礎石)을 파내기 시작하였다. 성안에서는 불화살과 돌을 퍼부어 적을 많이 죽였으나 큰비가 내려 성의 한쪽이 무너지면서 왜병이 몰려들자 거제 현령 김준민(金俊民)이 이를 막고 전사하였다. 이날 낮에 3번, 밤에 4번의 공격을 어렵게 막아냈다.
- 6월 24일 : 이날도 비는 계속 쏟아지는데 정오 무렵에 5~6천의 적병이 쳐들어 왔으나 물리쳤다. 이날 목사(牧使) 서예원(徐禮元)이 두려워 떨므로 그 직을 사천현감 장윤(張潤)으로 대체시켰다.
- 6월 25일 : 적이 동문밖 30보 되는 지점에 토산(土山)을 만들고 성안을 내려다보고 조총을 쏘므로 황진(黃進)이 성안에서도 토산을 만들어 현자총통(玄字銃筒)을 쏘아 적의 토산위에 집을 무너트렸다. 이날도 낮에 3회, 밤에 3회의 공방이 치열하였다. 김천일은 명군(明軍)과 관군측에 구원특사를 보냈으나 한사람의 구원군도 오지 않았다.
- 6월 26일 : 이날도 연일 비가 내렸는데 왜적이 큰 나무궤(木櫃)를 만들어 소가죽을 씌운 다음 이를 각자가 머리 위에 이고 성벽에 이르러 벽을 헐기 시작하니 성안에서는 큰 돌을 굴러 떨어뜨리고 또 총통을 쏘아 물리쳤다. 적은 다시 동문밖 토산위에 판자집을 짓고 그곳에서 성안 초가집들에 불화살을 쏘아 방화하니 성안에 화염이 가득하였다. 성안에서도 토산 위에 판자집을 짓고 대포를 쏘아 퇴각 시켰다. 이날도 비 오는 가운데 낮에 3회, 밤에 4회의 접전이 있어 군사들이

모두 지친 상태가 되었다. 특히 이날은 김준민 부장(巨濟縣令)이 용전끝에 전사하였다.

- 6월 27일 : 왜적이 성안에 투서(投書) 하여 항복을 종용하는 심리전을 폈다. 그리고 구갑차(龜甲車) 위에 정병 수십명을 싣고 성에 육박한 뒤, 철추(鐵錐)로서 성벽을 뚫기 시작하므로 황진이 나서서 기름 묻힌 쏠에 불을 붙여 투하하여 구갑차를 불태웠다. 밤 8시경에 적이 북문을 향하여 쳐들어 왔으나 김해부사 이종인(李宗仁)과 그 부하들이 힘껏 싸워 물리쳤다. 이날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광양출신 의병장 강희보(姜希輔)가 용전끝에 전사하였다.
- 6월 28일 : 서예원의 경계태만으로 그의 담당구역 성벽이 야음을 틈탄 왜군에 의하여 거의 뚫린 상태에 이르렀다. 왜병들은 새벽녘이 되자 그 곳을 향하여 집중 공격을 가하고 성을 넘으려 하였으나 황진, 이종인 등의 용전으로 겨우 물리쳤다. 무너진 성은 고쳐도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날은 순성장(巡城將) 황진(黃進)이 전사하여 성안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 6월 29일 :

황진을 대신하여 장운을 순성장으로 삼았으나 곧 전사하였다. 오후 2시경에 연일의 장마로 성의 동문이 무너지자 적군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었으나 이종인과 그의 휘하 장병들이 육박전으로 이를 물리쳤다. 다시 서북문을 향하여 적이 쳐들어오자 서예원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니 모든 군사들도 사기를 잃고 달아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축석루(矗石樓)쪽으로 장령(將領)들이 후퇴하여 김천일, 최경회 등 십여장(十餘將)은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하고 강희열, 이종인등 십여장은 적진에 돌격하여 장열한 전사를 하였다. 이렇게 진주성이 함락되어 군과 백성을 합한 사상자가 6만을 넘고 짐승들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왜군도 9일간의 전투에서 입은 막대한 병력손실과 전력상의 차질로 말미암아 마침내 철군하고 호남침공을 못하고 말았다.



사진2-65 : 형제의병장 강희보 · 강희열의 묘소



사진2-66 : 형제의병장 강희보 · 강희열의 사당

2) 제2차 진주성 전투 수성군(守城軍)의 편성(編成)

수성군의 편성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제2차 진주성 전투 수성군 편성표	
부서(部署)	담당장수 (擔當將帥)
절도사(節度使)	우도(右都)절도사 김천일 좌도(左道)절도사 최경희
도순성장(都巡城將)	황진
복수대장(復讐大將)	고종후
찬획(贊劃)	김축·김상곤
참좌(參佐)	김두남·김지남
군기주부(軍器主簿)	유한량 외 3명
각군부장(各軍部長)	강희보 외 6명
전투대장(戰鬥隊長)	강희열 외 38명
전투부대장(戰鬥副隊長)	강희원 강희복 외 95명

5. 정유재란과 광양 전투

1) 왜군의 휴전제의

왜군은 서울에서 패퇴하여 남하하면서 조선군과 명군의 공격을 늦추고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하여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남하한 왜군이 제2차 진주성전투를 한 이후로는 소강상태로 들어갔으며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1596년 6월경까지는 거의 일본으로 일응 철수하였었다.

2) 정유재란(丁酉再亂)

그러나 3년간에 걸친 휴전회담은 서로의 주장차이로 결국 깨어지고 말았다. 회담이 깨어지자 1597년(丁酉, 선조 30) 1월에 왜군은 14만군을 끌고 다시 쳐들어 왔다. 정유재란전 1593년 7월초에 왜군은 악양(岳陽), 화개(花開), 연곡(鰲谷), 구례(求禮), 석주진(石柱鎭)에 침입하여 닥치는 대로 살육과 약탈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 전라감사 이연암(李延菡)이 적의 재침을 막기 위하여 광양의 섬진(일명 豆恥津), 구례의 석주진(石柱鎭), 운봉의 팔량치(八良峙), 장수의 육십령치(六十嶺峙) 등 여러 곳에

첨사(僉使)나 만호진(萬戶鎭)을 설치하여 장차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려했던대로 왜군은 재침을 하였다. 재침한 왜군은 2개의 군단으로 나누어졌는데 우군(右軍)은 모리수원(毛利秀元)의 지휘하에 지리산의 북쪽을 경유하여 전주성(全州城)을 점령할 계획으로 전라도에 침입하였고 좌군(左軍)은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의 지휘하에 수륙병진으로 남원(南原)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좌군 주력군은 1597년 8월 5일 하동에 진출하였으며 그들의 수군(水軍)은 가등가명(加藤嘉明)의 인솔하에 7천명의 대병력이 광양의 두치진(豆恥鎭)에 상륙하였고, 그 선봉은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주력군과 합하여 구례, 남원, 전주를 점령하고 계속 북상하다가 충북 청원군의 직산(稷山)에서 우리 군과 명장(明將) 해산(解産)에 패(敗)하여 남쪽으로 내몰렸다. 이무렵 백의종군하여 재등용된 이순신 장군이 진주의 서쪽길을 거쳐 석주진에 도착하였다.(亂中日記)

북진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진 왜군은 경상도에 울산(蔚山), 사천(泗川), 전라도에 순천 왜교(倭橋) 등 3군데다가 장기적으로 주둔(駐屯)할 거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바닷가에다 거점을 만든 것은 초기에 식량 등 군수품보급을 하다가 의병들에게 습격을 받은 예가 많아서 경험을 토대로 한 것 같고, 재침 때는 호남을 먼저 쳐들어온 것도 식량확보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다.

3) 광양 탈환전(奪還戰)

소서행장(小西行長)의 인솔하에 1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순천 해룡면 신성리에 왜교(倭橋)⁵⁾ 거점을 확보한 왜군은 1597년 8월경부터 광양, 순창, 담양, 광주, 옥과, 동북, 능주, 화순 등지를 차례로 점령하여 식량을 빼앗고 항복하거나 복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민패(民牌, 주민증)를 주어 생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광양에서는 성휘(性輝)같은 승군(僧軍)이 일어나 중흥사에서 훈련하는 등 장애가 됨으로 모든 절을 불태워 버렸던 것 같다. 이때 명군과 조선군에서는 남으로 쫓겨간 왜군을 섬멸하기 위하여 4로군을 편성하여 이순신의 수군과 합세, 1597년 12월 23일부터 ‘울산’과 ‘사천’의 적을 총공격하기로 하였다. 전라병사 이광약(李光岳)은 3로군에 속하여 광양성 탈환에 임무를 맡았는데 왜교에서 가까운 광양방면을 견제함으로써 아군의 울산 총공격작전을 은폐하고 적의 전라도 침입의 입구를

5) 왜교(倭橋): 우까다 히에이에(宇喜多秀家) 토도오다 까도리(藤堂高虎), 두사람이 1597년 9월 2일부터 쌓기 시작하여 12월초에 완성하였는데 남해안에있는 26개의 왜성 중 호남에는 이 왜교 하나밖에 없고 현재 사적14호로 지정되어있다.

붕쇄한다는 전략상의 의의가 있었다. 남원전(南原戰)에서 전사한 이복남(李福男)의 후임으로 전라병사(全羅兵使)가 된 이광악은 각지에 흩어진 군사를 모아 이끌고 남하하여 12월 18일 밤에 광양성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성안의 왜적은 긴급히 왜교의 본진에 구원을 청하였다. 거리가 가까우므로 즉시 많은 구원군이 이르러 아군의 측면을 공격하니 우리군이 패하여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구례현감 김응서는 후퇴하는 관군의 맨뒤에서 말을 타고 천천히 후퇴하면서 적과 싸우자 노복(老僕)이 말고삐를 잡고 빨리 피하시라고 하자 “내가 달아나면 우리 군사가 모두 일시에 흩어지고 말 것인데 어찌 달아나겠는가?”라고 하며 맨 뒤에서 군사들의 후퇴를 돕다가 적의 화살을 맞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뒤쫓아 오는 3명의 왜적을 언월도(偃月刀)로 쳐 죽이고 노복에게 칼을 주면서 급히 떠나라고 하면서 죽었다. 이때에 병사 이광악은 후퇴하는 병사들을 수습하여 유격전을 벌이기도 하고, 별장 육승복(陸承福)으로 하여금 적군에게서 빼앗은 칼, 창, 군기(軍旗), 왜군의 군복(軍服) 등을 이용하여 적군으로 위장하여 적을 유인한 후 치기도하고, 정병을 뽑아 복병을 시켰다가 적을 습격하기도 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 광양전투에서 우리 군의 기지는 마로산성 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왜교가 눈앞에 보일뿐 아니라 순천, 옥룡, 봉강, 옥곡, 초남앞바다 등이 환히 보이기 때문에 작전상 매우 유리한 곳이었다. 하여튼 건디다 못한 왜군은 전부 왜교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왜군은 왜교를 나오지 못하고 성안에 갇혀서 만행을 막을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사천 울산 전투에 왜교에서 구원병을 보내지 못하게 한 성과가 실로 컸다.



광양전투에서 우리 군의 기지는 마로산성 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왜교가 눈앞에 보일뿐 아니라 순천, 옥룡, 봉강, 옥곡, 초남앞바다 등이 환히 보이기 때문에 작전상 매우 유리한 곳이었다.

6. 수군활동과 광양

1) 이순신(李舜臣) 장군과 거북선

이순신은 정읍현감(井邑縣監)으로 있다가 1591년 2월 19일(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전)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부임하였으나 ‘진해루’(지금의 여수 진남관)에만 앉아있지 아니하고 관할 지역인 순천, 광양, 보성, 낙안, 방담, 여도, 녹도, 사도를 직접 순시하면서



사진2-67 :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

무기를 정비하고 수군을 모아 ‘오동도’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 화살, 화약,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총통, 쇠사슬 등 각종 전쟁용 장비들을 만들어 비축하였다. 그리고 남해와 황해의 조류, 해류, 풍향, 수심 조사 등 장차 왜군이 침략할 것을 예측하고 국난을 막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1) 거북선 만듦

여천시 시전동 선소리에서 나주 출신 나대용(羅大用) 군관을 시켜 철갑선인 거북선 3척을 건조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바로 그해 1592년 4월에 건조되고 각종 시험도 마쳤다. 위는 판자로 덮고 그 위에 송곳과 창을 꽂아 왜군의 돌격전을 방지하였으며 수군 130명이 탈수 있게 만들었고 좌우에 각각 6개의 총구가 있고, 또 8개씩 16개의 배젓는 노(櫓)가 있으며 360도를 회전할 수 있고 6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었다.



사진2-68 : 거북선

2) 제1차 출정(出征) - 옥포해전(玉浦海戰, 3전 3승)과 광양수군

(1) 제1접전 - 옥포해전(玉浦海戰)

1592년 5월 1일 85척의 선단(싸울 수 있는 배는 24척 뿐이었으며 전선(戰船)에는 135 ~ 155명이 승선하고 사후선(伺候船)에는 5명이 승선하였음)을 이끌고 여수 앞바다를 출발하였다. 5월 7일 정오무렵에 옥포항에서 나오는 50여 척의 왜선을 만나 단번에 26척을 격파하였다. 그 때 우리측 함대편성과 함대별 전과(戰果)는 다음 표와 같다.

〈표2-24〉 우리측 함대편성과 함대별 전과			
직책	함대직위	성명	전과
樂安郡守	左部長	申浩	적의 큰 배 1척
寶城郡守	右部長	金光得	적의 큰 배 1척
興陽縣監	前部長	裴興立	적의 큰 배 2척 (고흥)
光陽縣監	中部長	魚泳潭	적의 중선 2척과 소선 2척
防踏僉使	中衛長	李純臣	적의 큰 배 1척
蛇渡僉使	右斥候長	金沆	적의 큰 배 1척
鉢浦暇長	遊擊長	羅大用	적의 큰 배 1척
鹿島萬戶	後部長	鄭運	적의 큰 배 2척
呂島權管	左斥候長	金仁英	적의 중선 1척
右部騎戰	統長	李春	적의 중선 1척
左部騎戰	統長	俞儻	적의 대신 1척
本營軍官	捍後長	崔大成	적의 큰 배 1척
本營軍官	斬退長	裴應祿	적의 큰 배 1척
本營軍官	突擊長	李彥良	적의 큰 배 1척
本營軍官	卞存緒·金孝誠은 둘이서 큰 배 1척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영담 광양현감 즉 광양 수군의 전과가 두드러진다.

(2) 제2접전 - 합포전(合浦戰)

1차 접전에서 큰 전과를 올린후 계속 전진하여 창원경계의 능천 합포(合浦, 지금의 마산) 앞바다에서 왜선 5척을 추격하여 다 격파하였다. 그 전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2-25〉 합포전 전과			
함대직위	성명	전과	
우척후장	김완	적의 큰 배 1척	
중위장	이순신	적의 큰 배 1척	
중부장	어영담	적의 큰 배 1척	
부통장	이응화	적의 소선 1척	
본영군관, 변존서, 송희립, 김효성, 이접 등의 협력으로 큰 배 1척			

(3) 제3 접전 - 적진포전(赤珍浦戰)

8일 아침 고성(固城)부근 적진포(赤珍浦) 앞바다에서 또 적의 선단을 만나 적의 큰배 5척과 중선 2척을 격파하였다. 세차례의 접전에서 순천대장선(順天代將船) 사부(射夫) 이선지(李先枝) 한 사람만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이었다. 9일에 여수항으로 돌아왔다.

3) 제2차 출정 - 당포해전(唐浦海戰, 4전 4승)

(1) 제1접전 - 사천, 곤양전 (泗川, 昆陽戰)

1592년 5월 29일 전선 23척과 처음으로 ‘거북선’까지 이끌고 사천(泗川) 곤양(昆陽) 앞바다에서 적의 탐색선 1척과 누각까지 있는 큰 배 12척(대장선)을 격침시켰다. 거북선의 위용을 선보였으나 나대용(羅大用, 거북선을 만든 군관)과 전봉사(前奉事) 이설(李潑)이 중상을 입었다.

(2) 제2접전 - 당포전(唐浦戰)

1592년 6월2일 당포 앞바다에서 수륙양면으로 역공하는 왜선 20여 척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3) 제3접전 - 당항포전(唐項浦戰)

1592년 6월4일에는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가 전선 25척을 보내와 원균과 함께 51척으로 ‘3도연합함대’를 편성하여 6월 5일 당항포(固城郡) 회화면(會華面) 앞바다에서 적선 26척을 발견, 유인하여 거북선을 앞세워 25척을 완전히 격파하였다.

(4) 제4접전 - 울포전(栗浦戰)

1592년 6월 6일 새벽에 포구 근방에 나타난 적의 큰배 1척을 격파하여 100여 명의 왜병을 무찔렀다. 6월 7일에는 거제(巨濟)부근의 영등포(永登浦) 앞바다에 이르렀다. 울포(栗浦)로부터 부산으로 도피하는 왜선 7척을 발견하여 역풍(逆風)이 부는데도 진격하여 5척을 격파하고 많은 적을 무찔렀다. 이 울포전에서 어영담(魚泳潭)의 광양 수군은 구사직(具思稷)과 함께 큰 배 1척을 불태우고 왜병 2명을 죽였다. 이로써 우리수군은 완전히 바다의 제해권을 쥐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 우리의 어영담 현감이 유행병에 걸려 진중(鎭中)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후 4차 출정때 부터는 우리 광양 수군의 접전과 전과도 기록이 없다.



울포전에서 어영담(魚泳潭)의 광양 수군은 구사직(具思稷)과 함께 큰 배 1척을 불태우고 왜병 2명을 죽였다. 이로써 우리 수군은 완전히 바다의 제해권을 쥐었다.

4) 제3차 출정 - 한산해전(閑山海戰, 2전 2승)

(1) 제1접전 - 한산해전

전라우수사 이억기, 경상우사 원균이 합세 하여 1592년 7월 7일 영등포로부터 견내량(見乃梁) 어구에 접근한 왜선 73척의 대선단과 만났다. 그러나 우리 전선은 크고 무거워 좁고 물이 얇은 곳에서는 자유롭게 격전하기가 어려우므로 선봉선 5척으로 왜선을 서서히 유인하여 전부를 넓은 바다로 끌어낸 후, 퇴로를 차단하고 학이 날개를 퍼듯이 양날개에 총포대를 배치하여 적을 포위하는 ‘학익진형(鶴翼陳形)’으로 진격하여, 12척은 사로잡고 47척은 불살랐으며 많은 왜장(倭將)과 병사들을 죽였다. 여기서 어영담과 광양 수군은 누각(樓閣)이 있는 큰 배(장수가타는배) 1척을 완전히 사로잡고 왜장(倭將) 외 11명을 죽이는 공을 세웠다.

(2) 제2접전 - 안골포전(安骨浦戰)

7월 10일에는 안골포 포구에서 3층 누각이 있는 배 1척과 2층 누각이 있는 배 2척을 비롯하여 42척의 왜선단을 만나 격파, 전멸시켰다. 이 전투에서 광양수군 김두남(金斗南) 유 조(柳條) 등 24명의 전사자와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7월 1일 여수 본영으로 개선하였다.

5) 제4차 출정 - 부산포해전(釜山浦海戰, 3전 3승)

(1) 제1접전 - 양산강구전(梁山江口戰)

1592년 8월 24일 전선 74척, 좌우에서 협공하는 협선(挾船) 92척, 모두 166척을 거느리고 이억기 우수사와 연합하여 여수를 떠났다. 8월 29일 양산(梁山) 김해 양강(兩江)의 앞바다에서 왜선 6척을 격파하였다.

(2) 제2 접전 - 부산외양전(釜山外洋戰)

9월 1일 몰운대, 다대포, 서평포, 절영도에서 왜선 24척을 보는데로 남김없이 격파, 전멸시켰다.

(3) 제3 접전 - 부산내포전(釜山內浦戰)

9월 1일 부산진 어구에 닿아 보니, 대 중 소를 합쳐서 470척의 왜선들이 있었는데 연안(沿岸)의 높은 산상(山上)에 6개의 포대를 만들어 놓고 지세를 이용하여 육상에서 집중적으로 총을 쏘아대므로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거북선을 선두로 쳐들어가서 왜선 100여 척을 격파, 도륙하고 일단 가덕도진(加德島鎭)에 돌아왔다. 그러나 이 접전에서는 6명의 전사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내었는데 녹도만호 정운(鄭運) 장군이 전사하였다.

〈표2-26〉

1차 ~ 4차 출정(出征) 동안 광양 수군의 피해상황

제2차 출정(당홍포해전때) 부상자	광양선	格軍鮑作	南 山壽
	광양선	放砲匠	徐 千童
	광양선	射夫	白內隱 孫
제3차 출정(안골포해전때) 부상자	광양선	都訓導	金 溫
	광양선	無上	金 化
	광양선	格軍	先 同
제3차 출정(안골포해전때) 전사자	방답일선(防踏一船)	別軍光陽	金 南
	방답일선(防踏一船)	別軍光陽	柳 條

6) 5차 6차 출정과 휴전상황

제5차 출정(1593년 2월 6일 ~ 4월 3일)과 제6차 출정(1593년 5월 7일 ~ 7월 14일까지)이 있었으나 이때부터 3년간은 휴전(休戰) 협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해전이 일단 중지된 셈이었다. 1593년 8월에 이순신은 ‘3도수군통제사’ 직책을 받고 한산도 본영에 있으면서 250척의 전선과 사후선(伺候船. 물자보급선) 250척을 더 건조하였으며, 승병들을 모아 각처에 나가 쇠(鐵)를 모아 오게하여 정사준(鄭思俊)이 연구한 조총보다 성능이 우수한 ‘정철총통(正鐵銃筒)’을 만들었고, 또 화약을 만들어 비축하는 등 왜적의 재침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다.

7. 이순신의 ‘3도수군통제사’ 복직과 광양

휴전협정이 깨어지자 왜군은 재침하면서 이순신을 제거할 목적으로 모함을 꾸몄다. 그 모함으로 인하여 1597년 2월 26일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까지 받았으나 28일만인 4월 1일에 석방되어 백의종군(白衣

從軍)의 명령을 받고 4월 3일 길을 떠나서 순천을 거쳐 6월 8일 초계에있는 도원수 권율을 만났다. 7월 15일 이순신의 후임을 맡았던 원균(元均)이 칠천량전(漆川梁戰)에서 참패를 당하고 죽자 7월 23일 이순신에게 ‘전라 좌도 수군절도사’와 이어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3도수군통제사’에 복직을 명했다.

진주에서 교서를 받았으나 원균의 패전으로 수군도, 전선도, 병기도 없었다. 권율 도원수에게서 군관 9명과 군사 6명을 얻어 거느리고 수군재기의 길에 나섰다. 8월 3일에는 광양시 다압면 섬진리에 있는 두치진(豆峙鎭)에 들렀다가 화개를 경유하여 8월 4일에 구례에 이르렀다가 곡성 옥과를 거쳐 7일에 순천에 당도하였다. 왜군이 남원을 공격하기 위하여 8월 5일에 구례를 점령하였으니 1일만 늦었다면 어찌되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 순천까지 오는 사이에 60명의 군사를 얻었고 순천에서 찾아온 ‘중’ 혜희(惠熙)에게 의병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광양 승병장 성휘(性輝)도 이때 기병하여 석주진을 지켰다. 8월 18일에 장흥 회령포(會寧浦)에 이르러 전라 우수사 김억추(金億秋)와 협의하여 120명의 군사와 배 12척을 수습했다. 8월 20일에는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의 이진(梨津)으로 진(鎭)을 옮겼다.

이때 조정에서는 수군(水軍)을 폐지하고 육전으로 중군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장계(狀啓)를 올려 “이제 신에게 12척의 전선이 있으니 죽을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1) 명랑해전(울돌목)의 승리

1597년 9월 14일 진도입구에 있는 물살이 세고 좁은 울돌목에서 12척의 전선으로 왜선 133척과 접전하여 아군은 아무런 피해없이 왜선 31척을 불태우는 세계 해전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었다.

2) 왜교로 인한 광양, 순천의 피해를 견제

순천 광양 지방에 왜교의 왜적들이 백성들을 심히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공격하기 위하여 1598년 2월 17일 고하도(高下導)에서 완도 고금도(古今島)로 진(鎭)을 옮겼다. 7월 16일에 명군 제독 진린(陳麟)이 수군 5,000명을 이끌고 찾아왔으나 왜군에 이어 명군들이 백성들을 더 괴롭혔다.



광양 승병장 성휘(性輝)도 이때 기병하여 석주진을 지켰다.

3) 노량대전(露梁大戰)과 이순신 의 최후

1598년 8월 18일 풍신수길(豊臣秀吉)이 갑자기 죽자 왜교에 소서행장은 명나라 제독 유정과 진린과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에게도 많은 뇌물을 주고 일본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애걸하였으나 이순신 장군이 추상 같이 거절하고 그들을 섬멸할 작정을 하였다. 마지막에는 진린에게 통신선 1척만 나가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니 진린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왜적의 대선단이 몰려올 것을 알고 미리 노량목으로 나갔다. 과연 왜선 500여 척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 대접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이 쏜 총에 왼편 겨드랑이를 맞았다. 1598년(선조31) 11월 19일(양력 12월16일) 이른아침에 54세의 나이로 위대한 생애를 마쳤다. 생각하면 직접적으로는 왜교의 왜적을 섬멸하여 광양, 순천 백성들을 구하려는 의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접전에서 왜선 200여 척을 격파하였으나 소서행장은 겨우 50여 척의 배만 이끌고 도망갔다. 이렇게 7년의 왜란은 끝났다.

8. 임진왜란(壬辰倭亂)과 관련된 광양 인물사(무순)

▶ 강희보(姜希輔), 강희열(姜希悅) 형제 장군

(1) 출생

강희보(兄)와 강희열(弟)은 1560년대(13대 명종때) 무렵에 광양시 봉강면 신촌 마을에서 강천상(진주 강씨, 광양읍지에는 遇福으로 기록됨)의 두 아들로 태어났다. 사람들은 신촌마을 앞에 높이 솟아 있는 형제봉에서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다.

(2) 의병을 일으킴

강희보는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비(飛)자를 장표(章標)로 하여 동생 희열과 같이 의병을 일으켜⁶⁾ 인근에서 200여 명을 모았다. 그때 경상도 산청군 단성(丹城, 거창을 거쳐 호남으로 이르는 요로)에서 적과 싸우고 있던 큰아버지 ‘인상(麟祥)’을 구원 하기 위하여 군사를

6) 『호남 절의사』에는 순천서 기병한 것으로 되어있음

이끌고 달려 갔다. 무과에 급제 하여 조방장(助防將)으로 구례 석주관(石柱關)을 지키고 있던 강희열도 휘하 군사를 이끌고 단성으로 달려가 형 희보와 힘을 합하여 큰아버지를 구하였으며 싸움이 끝나자 다시 석주관으로 돌아와 아들 승훈(承勳)을 데리고 수비하였다.

(3)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

① 진주성 수비

임진왜란 초기에 위세를 떨치던 왜군은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에게 크게 패전한 후 위세가 꺾이어 1593년 4월부터는 경상남도 진주쪽에 머무르게 되었다. 10만이 넘는 왜군이 밀어닥치자 많은 장수들이 진주성을 비우고 흩어졌으나 나주 출신 김천일 장군과 화순 출신 최경희 장군이 분연히 일어나 “진주가 무너지면 호남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며 자원하는 의병 관군들과 합세하여 결사의 정신으로 진주성 수비에 나섰다.

② 진주성 싸움과 순절

진주성의 위급한 상황을 전해들은 강희보, 강희열 형제와 큰아버지 인상의 아들들인 강희원, 강희복은 휘하 장수들을 이끌고 달려가 김천일 장군의 지휘하에 들어가 강희보는 부장(部將)으로, 강희열은 전투대장(戰鬪隊將)으로 싸웠다. 1593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가운데 9일간의 처절한 싸움에서 모두 순절하였다. 강희보는 6월 27일 전사하고 강희열은 6월 29일 전사하였다. 그 당시 아군의 병력은 1만여 명인데 비해 왜군은 10만이 넘는 대규모의 병력과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어 비교가 되지 않았으나, 9일간을 버티고 싸움으로서 왜적도 성을 점령하기는 하였으나 많은 전사자와 피해를 입어 그들이 목적하였던 호남 침공을 포기하고 말았다.

(4) 추모사업

뒷날 조정에서는 이들을 진주 창렬사(彰烈祠)에 배향하였고, 영조 40년에 강희보에게는 ‘형조좌랑(정6품)’을, 강희열에게는 ‘병조참의(정3품)’를 추증하였다. 1970년에는 후손인 강윤진씨가 앞장서 강씨 문중과 광양의 유지들의 뜻을 모아서 ‘강희보 강희열 형제장군 승모회’(회장 박태상)를 창립하여 봉강면 신흥리 뒷산에 나란히 있는 묘소와 묘비를 보수하였고, 사당을 건립하였으며, 1998년에는 동재(東齋) 서재(西齋) 삼눈 등을 신축



진주성의 위급한 상황을 전해들은 강희보, 강희열 형제와 큰아버지 인상의 아들들인 강희원, 강희복은 휘하 장수들을 이끌고 달려가 김천일 장군의 지휘하에 들어가 강희보는 부장(部將)으로, 강희열은 전투대장(戰鬪隊將)으로 싸웠다.

하고 이어 사당과 관리사를 이축하여 규모를 갖추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의로운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 임우화(林遇華)

1592년 9월 강희보가 의병을 창의(倡義)할 때 초야에서 몸을 일으켜 부장(副將)이 되었다. 『진양지(晉陽誌)』에 “임우화는 경적(經籍)에 박통(博通)하고 담략을 겸비하여 여러 장수들이 정중하게 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2차 진주성 전투에 강희보와 더불어 참전하였다가 6월 22일 순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안방준(安邦俊)의 『은봉전서(隱峰全書)』에서는 강희보의 명을 받고 응원군을 청하러 성밖으로 나가다가 붙잡혔으나 하동(河東)에서 탈출하였다고 되어있으며, 4종의 광양지와 1798년의 광양군지는 모두 전쟁이 끝난 후 그가 광양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붙잡혔다가 탈출하였다는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 김연우(金延佑)

경주 김씨이며 정랑(正郎) 이정(利貞)의 손자이고 현령(縣令) 영(嶺)의 아들이다. 1579년(선조 12)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벗에게 우애가 넘쳤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부장(前部裝)으로서 아우인 한우(韓佑)와 더불어 평양의 이제독(李提督)의 진중에 속하여 싸우다 적의 총을 맞고 숨졌다.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⁷⁾을 받았다.

▶ 채구연(蔡九淵)

채구연은 조선 중종 23년(1528년) 2월 14일 광양현 진하면 장치리(진월면 망덕리 장재마을)에서 출생. 자는 자정(自靖), 호는 청허(聽虛) 나이 36세 되던 해인 명종 병자년(1564년)에 과거에 합격, 선조 신묘년(1591년)에 밀양부사(그때 나이 64세)에 임명. 노쇠에도 불구하고 부임 즉시 성지를 수리하고 병졸을 훈련시켜 공수를 굳게 하였으며 1592년 4월과로로 밀양부사직을 사임하고 후임으로 박진(朴晉)이 임명되었는데 밀양 백성들이 난국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인 채구연을 다시 유임시켜 줄 것을 경상감사에게 진정, 하회를 기다리던 중 동년 4·15일 부산·동래·울

7)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 임진왜란때 정공신(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공신의 칭호



사진2-69 : 채구연 의사의 묘

산이 왜구에 점령당하자 밀양부사 박진과 함께 전투에 임하다 성이 함락되자 장렬하게 맞서 싸우다 밀양성에서 순절하였다.

▶ 허수겸(許守謙) · 허수익(許守益)

김해 허씨로 1588년(선조 21)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을 지내고 1592년 임란때 선조가 의주로 몽진(蒙塵)할 때 왕을 호위 하였다. 한양으로 돌아와 그 공으로 병조정랑(兵曹正郎)이 되었고 호조로 옮겼다가 강진현감(康津縣監)이 되었다. 1605년에 정난공신(靖難功臣)이 되었고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승진되었다. 늙어서 귀향하여 비봉산 아래에서 후생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쳤다. 후에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아우인 허수익은 무인으로 형과 함께 의주로 몽진하는 왕을 도왔다. 1594년(선조 27)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수문장이 되었고 『참정난공신록(參靖難功臣錄)』에 기록되어 있다.

▶ 박성춘(朴成春)

승평 박씨이며 자는 정숙(正淑)이다. 문예(文藝)에 조예가 깊었으며 기사(騎射)에도 능했다. 1573년(선조 6)에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主簿)에 이르렀다. 임진왜란때 상주포(尙州浦)의 권관(權官)으로 이순신 장군을 따라 거제 앞바다에서 왜선을 무찌르며 돌격하다가 유탄을 맞았다. 임종에 앞서 아들 이랑(以郎)을 불러 원수를 갚을 것을 유언하고 숨을 거두었다. 사후에는 조정에서 증 절위장군(贈 折尉將軍)과 선무원종1등훈(宣武原從1等勳)을 내렸다. 『호남절의록』에는 순천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박이량(朴以良)

승평 박씨이며 자는 여현(汝賢)으로 박성춘의 아들이다. 임진왜란때 훈련첨정(訓練僉正)으로 거제전에 참가하였는데 아버지가 전사하자 그 시체를 업어 빈소에 안치한 후 즉시 가동(家童)을 인솔하여 순천부사 권준과 협력하여 한산도대첩때 왜군을 무찔렀다. 그 공으로 덕진관(德鎭官) 적량수군도위(赤梁水軍都尉)를 제수받고 계속 적을 무찌르다 전사하였다. 사후 증과의교위(贈 果毅校尉), 소의장군(昭威將軍), 건공장군(建功將軍)이 되었고 선무원종2등(宣武原從2等)에 기록되었다.



사진2-70 : 김천록 정려이건 사적비

8) 『호남절의사』에는 나주로 기록되어 있다

▶ 김천록(金天祿)

여주관관으로 있을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량을 운송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제2차 진주성싸움에서 김천일·최경희장군과 함께 끝까지 항전하다 장렬하게 순절함. 조정에서 선무원종공훈 록에 2등훈 반열에 기록하고 1891년 조정에서 정려를 세웠는데 당초 광양읍 용강리 국도변에 있었으나 1982년에 출생지⁸⁾인 골약동 금곡마을 앞으로 이전하고, 동년에 유당공원에 이건사적비를 세움

▶ 박대복(朴大福)

1567년 진월 신아리 아동출신. 자는 선부(善夫). 생원 기현(綺玄)의 손자임. 1582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主簿)관직을 역임함. 1592년 임진왜란시 이순신장군의 휘하에서 한산도대전에 공을 세우고 전사함. 선무원종공훈록에 등재됨.

▶ 황대업(黃大業)

창원 황씨이며 진사 후헌(後憲)의 증손이다. 임난을 당하여 부호군(副護軍)이었던 동생 성업(性業)과 통정(通政)이었던 사업(嗣業)과 함께 가동(家童)들을 거느리고 왜적에게 기습작전을 펴다가 왜적에게 붙잡혀 일본까지 끌려갔으나 만년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관직이 통정(通政)에 이르렀다.

▶ 남산수(南山壽)

임진왜란때 어영담이 이끄는 광양선의 격군포작(格軍鮑作)이었는데 1592년 5월 29일부터 시작한 좌수영군의 제2차 출전때 '당황포해전'에서 서천동과 같이 부상당하였다.

▶ 서천동(徐千童)

이천 서씨이다. 임난때 어영담이 이끄는 광양선의 방포장(放砲匠)이었는데 남산수와 함께 제2차 출전때 당황포해전에서 화살에 맞아 부상당하였다. 희양지(曦陽誌)에는 전사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부상이 맞다고 생각된다.

▶ 백내은(白內隱)의 손자

이름이 분명하지 않으나 임난때 어영담이 이끄는 광양선의 사부(射夫)이었는데 남산수 서천동과 함께 당항포해전에서 전사하였다.

▶ 김 온(金溫), 김담화(金淡化), 선동(先同)

위 세사람은 ‘방답일선(防踏一船) 별군광양(別軍光陽)’에서 김온은 도훈도(都訓導)였고, 김담화는 무상(無上. 특별히 맡은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이었고, 선동(姓은 불확실함)은 직책이 불명한테, 이 세 사람은 1592년 7월 11일 제3차 출정 때 안골포해전에서 부상당하였다.

▶ 김 두남(金斗南), 유조(柳條)

이 두 사람은 ‘방답일선 별군광양’에 속하였는데 1592년 7월 11일 제3차 출정때 안골포해전에서 전사하였다.

▶ 성 휘(性輝)

옥룡면 동곡리에 있는 송천사(松川寺)의 승려(俗姓은奇遇). 1592년 8월 백의종군 후 다시 복직되어 순천에 도착한 이순신 장군이 찾아온 중(僧)혜희(惠熙, 혹은 三惠)에게 승병(僧兵)조직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그 조직된 상황을 1593년 1월 26일 장계(狀啓)로 올려 보고하였는데⁹⁾ 이 「분송의승파수 요해장(分送義僧把守 要害狀)」이라는 장계에 의하면 영호남(嶺湖南)의 관문인 구례의 석주관(石柱關)과 광양의 섬진강(斗瀝江)등 요해지(要害地)를 지키자는 격문에 여러 산에서 일어난 승군이 400여 명이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 중에서 순천의 삼혜(三慧)는 시호특도장(豺虎特都將)으로 순천을 맡고, 흥양(興陽, 고흥)의 의능(義能)은 유격별도장(遊擊別都將)으로 좌수영 본영(本營)에 머물고, 광양의 성휘(性輝)는 우돌격장(右突擊將)으로 ‘두치’를 맡으며, 광주의 신해(信海)는 좌돌격장(左突擊將)으로 석주관을 맡으며, 곡성의 지원(智元)은 양병용격장(揚兵勇擊將)으로 팔랑치를 맡아 파수(把守)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때 스님들은 이순신이 조총보다 성능이 좋은 정철총통(正鐵銃筒; 鄭思媛이 연구한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쇠(鐵)를 모아오기 위하여 화주(化主)라 권한는 글을 써가지고 각처로 다니며 고철, 식기(食器)류 등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성휘는 광양출신은 아닌 듯 하다.

9) 이은상이 지은 『충무공전서』 234쪽에 기록되어 있다.

▶ 어영담

어영담은 함중 어씨(咸從魚氏)이다. 그의 시조 화인(化仁)은 중국 남북조때(1195-1197) 난(亂)을 피해 우리나라로 귀화하여 강원도 강릉에 살다가 그 후에 평남 함중(咸從)으로 이거(移居)하였다가 진주로 옮겨 살았다. 그는 담력(膽力)과 지략(知略)이 뛰어나 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도 만호(呂島萬戶)에 발탁되어 진관막하(鎭管幕下)에서 남해안의 해로를 조사하고 익히는 일을 하였다.

그후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1592년 11월 2일 광양현감으로 부임하였는데 이때 임난의 전화(戰禍)가 곳곳에 미쳐 백성들이 안정하지 못하고 전전공공하였다. 그러나 그가 부임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위무하고 행정의 폐단을 개혁하며 전쟁을 대비하여 무기를 만들고 나라일을 자기몸과 같이 근심하여 혼란을 수습하였다. 그의 성품과 도량이 고요하고 무거우며 원래 바닷가에서 조련되어 해전의 방략에 능하고 밝아서 바다를 평지처럼 드나들었다. 그가 광양선(광양수군은 약 135명~155명으로 추정)을 이끌고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중부장으로 언제나 향도(嚮導)역할을 하면서 가장 많은 공을 세웠다. 이러한 공으로 당상관(堂上官)까지 올랐었다.

그의 공을 아뢰는 이순신 장군의 장계의 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광양현감 어영담은 늘 먼저 돌진하여 왜의 층각대선(層閣大船)을 당파(撞破 : 쳐서 격파함)하여 바다에서 온전히 사로잡고 왜장을 쏘아 맞혀서 신(臣)의 배로 묶어 왔는데 죄를 묻기 전에 화살맞은 것이 중상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므로 즉시 목을 베었으며 다른 왜적 12급을 베었고 우리나라 사람 1명을 산채로 빼앗아 왔습니다” (壬辰 7월 초8일).

그 외에 어영담이 바다에서 싸우고 있을 때 1593년 1월 27일 독운어사(督運御使) 임발영(任發英)이 광양을 순시하여 창고에 쌓인 쌀, 콩, 조미(租米) 600석을 발견하고 부정으로 관주하고 어영담을 파면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광양에 사는 김두(金斗) 등 126명이 연명으로 된 호소문을 이순신 장군에게 올렸으며 이에 따라 이순신 장군이 다시 조사를 시킨 결과 그 저축한 곡식은 군량과, 백성을 진휼(賑恤)하는데 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조정에 장계를 올려 다시 복직시켰다. 그러나 1594년 4월 10일 진중에서 유행병으로 사망하였다. 그가 죽은 후 보성(寶城)에 안장하였으나 후손들도 아직 그의 묘(墓)를 찾지 못하고 있다.¹⁰⁾

10) 출신지 성명 등이 불확실한 사례가 많고 전사자나 부상당한 사람 가운데서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며, 광양선에 135명~155명은 타고 전공을 세웠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이름을 확인할 길이 없다.